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우즈베키스탄

Republic of Uzbekistan

2019년 5월 29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447천 km <sup>2</sup> 	<b>인구</b> 32.657백만 명 (2018기준) 	<b>정치체제</b> 대통령중심제 	<b>대외정책</b> 서방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 유지 
<b>GDP</b> 412.41억 달러 	<b>1인당GDP</b> 1,262.86 달러 	<b>통화단위</b> Som 	<b>환율(U\$기준)</b> 8,339.55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3,27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1.1조 m<sup>3</sup>), 원유(6억 배럴), 우라늄(6만 5,600톤), 금(1,700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에너지, 광물, 금, 면화 등 주력산업인 자원에너지 부문과 농업 부문의 발전, 중국으로의 가스관 연결을 통한 가스 수출 확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2016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88.6%의 높은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경제자유화, 환율제도 개혁, 외환자유화 추진 등의 경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에너지 플랜트 부문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내륙국이라는 취약한 지리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운송망과의 연결을 통한 물류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취임 후 주변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주요 협력국가인 러시아, 중국과의 교역, 투자 협력을 긴밀히 하는 한편, 미국이나 EU 등 서방 국가들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1. 29 수교 (북한과는 1992. 2. 7)

**주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98), 세관협력협정('99), 형사사범공조조약('04), 사회보장협정('06), 외교관 여권사증면제협정('09), 근로활동협정, 군사비밀보호협정(이상 '12), 관광협력협정('13)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출	927,671	1,180,445	2,117,451	수송기계, 일반기계, 플라스틱
수입	20,777	18,117	21,920	면, 곡물

**해외직접투자현황(2018년 말 누계, 총투자기준)** 316건, 7억 700만 달러

## 우리은행과의 관계

(2019/05/22 현재)

구분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액	대출잔액
수은대출(천달러)	8,998,897	8,190,617		1,300,882
경협기금(백만원)	353,672	179,063		133,021

# 정량평가 경제지표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우즈베키스탄  
Republic of Uzbekistan

종전 평가일 : 2018.04.11

분야	평가요소	2014	2015	2016	2017	2018	
I. 국내경제 (50%)	1인당 GDP(달러)	2,070	2,143	2,124	1,520	1,263	
	소비자물가상승률(%)	9.1	8.5	8.0	12.5	17.9	
	재정수지/GDP(%)	3.2	1.4	1.9	2.1	3.1	
	GDP 규모(억 달러)	631	665	671	488	412	
	실질GDP 성장률(%)	8.0	7.9	9.0	8.9	5.0	
	국내총투자/GDP(%)	30.1	26.9	25.3	31.9	41.0	
II. 국제경제 (50%)	대외거래 (25%)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8.9	10.6	10.2	8.9	6.4
		경상수지/GDP(%)	1.4	0.7	0.4	3.0	-8.7
		총수출증가율(%)	0.1	-4.5	-13.8	17.6	15.4
		총수출/GDP(%)	24.6	22.3	19.0	30.7	42.0
		총외채잔액/총수출(%)	85.8	100.0	127.6	118.0	103.9
	외채상환능력 (25%)	D.S.R.(%)	6.4	4.1	5.2	12.6	14.0
		총외채잔액/GDP(%)	22.1	22.3	24.3	36.3	43.6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5.5	7.9	5.9	11.0	8.4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8.0	7.9	9.0	8.9	5.0
소비자물가상승률	9.1	8.5	8.0	12.6	17.9
재정수지/GDP	3.2	1.4	1.9	2.1	3.1

자료: IMF, EU

### 세계경기 침체와 경상수지 적자 전환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 2014~17년 동안 8%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던 우즈베키스탄은 세계경기 침체와 경상수지 적자 규모 증대 등의 영향으로 5%의 경제성장률에 머물렀음.
- 경상수지 적자 등 다른 지표들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및 주택, 에너지, 광물 등의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의 증대가 경제성장을 지탱한 것으로 평가됨.
- 2019년에도 5%의 성장이 전망되며, IMF에 따르면 2020년에는 5.5%, 2024년에는 6%로 성장률이 다소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WEO. April 2019. p. 160)

### 환율 상승으로 초래된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

- 2017년 공식 환율을 시장 환율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환율단일화가 단행된 이후 환율이 급격히 상승함.
- 환율단일화에 따라 연평균 달러당 솜화 환율은 2016년의 3,231솜에서 2017년에는 8,120솜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는 더욱 상승한 달러당 8,339솜을 기록함.
- 환율 상승,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9%를 기록하여 2017년의 12.6%를 상회하였음.
- 2018년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소비재 가격 인상과 명목임금 25%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2019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16.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중앙은행은 2017년 6월 환율단일화를 앞두고 환율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 증가에 사전적으로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9%에서 14%로 인상하였으며, 2018년 9월에도 환율 안정을 위해 16%로 추가 인상하였음.
- IMF의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점차 안정되어 2020년에는 11.9%로 하락하고 2024년에는 7.5%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WEO. April 2019. p. 165)

### 재정수지 흑자 지속

- 2018년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은 에너지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대비 상승함.
-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2014년의 3.2%에서 2015년 1.4%로 하락한 후, 에너지 수출가격 상승에 따라 2016년 1.9%, 2017년 2.1%로 상승을 지속하여 2018년에 이르러 3.1%로 2014년의 수준을 회복함.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 상 수 지	906	470	295	1,480	-3,577
경상수지/GDP	1.4	0.7	0.4	3.0	-8.7
상 품 수 지	-1,835	-797	-2,392	-2,216	-6,867
상 품 수 출	12,903	9,997	8,645	10,162	11,386
상 품 수 입	14,738	10,794	11,037	12,377	18,252
외 환 보 유 액	12,776	12,929	13,457	13,285	13,430
총 외 채	13,311	14,802	16,291	17,708	17,999
총외채잔액/GDP	22.1	22.3	24.3	36.3	43.6
D.S.R.	6.4	4.1	5.2	12.6	14.0

자료: IMF, EIU

### 중간재 수입규모의 증가에 따라 2018년 경상수지 적자 전환

- 투자 확대 등의 영향에 따른 수입액의 증가로 경상수지는 GDP 대비 -8.7%의 적자로 전환됨.
-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액이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산업 현대화, 무역 자유화 등의 영향에 따른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의 증가에 따라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음.
- 상품 수입액은 2017년 102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18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수입 규모도 2017년 41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52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2018년 외환보유액은 134억 달러로 전년도와 유사

- 외환보유액은 2016년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8년 9월 기준 139억 달러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점차 비중을 축소할 계획임.
- 2019년 2월 중앙은행은 향후 금의 보유 비중을 축소하고 미국 국채 등 수익성 높은 외화채권 구입 계획을 발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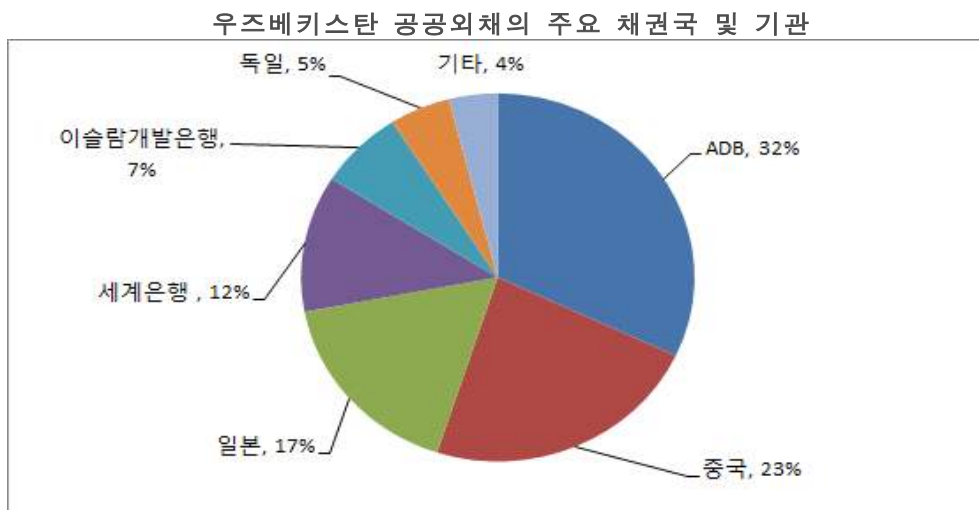
## 외채상환능력

### 총외채규모 다소 증가 추세

- GDP 규모 감소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43.6%로 증가함.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6년 이후 증가 추세임. (24.3%(16) → 36.3%(17) → 43.6%(18))

### 대부분의 외채 관련 지표들은 안정적 수준 유지

- 2018년 기준 총수출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104%,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8.2%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GDP 대비 공공외채 비중(20%)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43.6%)은 상승 추세이나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임. 공공외채의 57%는 ADB, 세계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며, 주요 채권국은 중국, 일본, 독일 등임.



자료: Fitch Ratings

###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상승 추세이나 안정적 수준

- D.S.R.은 최근 상승 추세이나, 역시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D.S.R.은 2016년 이후 상승 추세(5.2%(16') → 12.6%(17') → 14.1%(18'))이지만 유동성 위험 수준에 이르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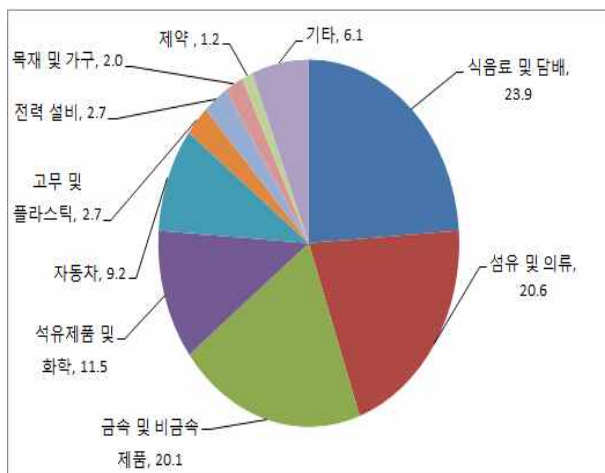
## 구조적취약성

### 수출의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대외경제환경에 취약한 경제구조

- 가스, 면화, 금 등 원자재의 수출비중이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임.
- 2018년 기준으로 3대 주요 원자재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4%에 이름.

제조업 부문별 비중(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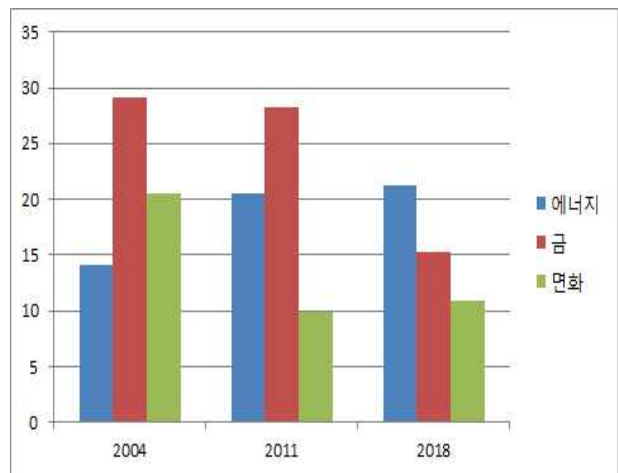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주요 수출품목(2018)

(단위: %)



자료: EIU

### 제조업 발전의 취약성

- 원자재 가공업이나 식품, 섬유 이외의 제조업 부문 발전이 취약하여 다수의 소비재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정부가 제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조업 생산은 식음료, 섬유, 금속 등 몇몇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일자리의 부족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약 20%인 260만 명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한국 등을 비롯한 해외에 취업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물류 환경의 취약성

- 이 중 내륙국으로 운송 및 물류환경이 취약함.

우즈베키스탄의 물류지수(2018)

국 가	종합순위	통관	물류인프라	국제운송	물류역량	물류추적	적시성
우즈베키스탄	99	140	77	120	88	90	91

자료: World Bank, International Logistics Performance Index(2018)

\* 평가대상 160개국 가운데 순위.



## 성장잠재력

### 천연가스, 원유, 우라늄 등 풍부한 부존자원 보유

- 2017년 기준 천연가스 1.1조 m<sup>3</sup>, 원유 6억 배럴 등의 에너지 자원과 각종 광물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원수출을 통해 사회·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최대 수출품목인 천연가스는 2017년 기준 러시아로 67억 m<sup>3</sup>, 중국으로 34억 m<sup>3</sup>, 카자흐스탄으로 17억 m<sup>3</sup> 등 118억 m<sup>3</sup>가 수출되었으며, 이는 2015년의 75억 m<sup>3</sup>에 비해 57%가 증가한 것임.

### 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석유화학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추진

- 향후 대규모 석유화학 및 화학 산업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슈르탄 천연가스 액화장치(GTL),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 칸딤 가스처리 설비 등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2019~30년 화학 산업 투자유치 및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두 121억 달러 규모의 31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5개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나보이, 지작, 수르한드리야 등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100MW 규모의 나보이 태양광발전소는 2019년 2월부터 공개 입찰이 진행되고 있음.

###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인구성장률 유지

- 2018년 기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3,27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인구는 1991년 독립 직후 2,060만 명에서 2000년 2,465만 명, 2010년 2,856만 명, 2015년 3,130만 명, 2018년 3,270만 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인구의 평균 연령이 28.6세로 낮은 편이며, 평균 수명은 73.8세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음.

### 운송 및 물류 인프라 환경 개선 노력

-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제다자금융기구의 투자,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에 따라 물류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에는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19km에 달하는 캄치 터널의 건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 중국의 서부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등의 성과가 있었음.
- 기존의 국제다자금융기구인 ADB, WB, EBRD, IDB와 함께 새롭게 설립된 개발은행인 AIIB가 운송, 에너지 부문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음.

## 정책성과

### 경제개혁 및 개방 정책 적극 추진

- 외환자유화, 환율제도 개혁, 무역자유화, WTO 가입 재개 추진 등이 개혁정책의 대표적인 성과임.
- 과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엄격한 외환관리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수출외환소득의 의무매각제 등을 폐지하고 개인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는 등 외환자유화 정책을 실시함.
- 환율정책에서는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이중환율제에서 단일환율제로 전환하였으며,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7년 12월 IMF의 데이터 보급 표준 시스템(Enhanced General Data Dissemination System, e-GDDS)에 가입하여 2018년 5월부터 주요 경제 지표들을 공개하고 있으며, 통계청, 중앙은행, 재무부 간의 협력을 통해 통계 부문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무역자유화를 통해 기업의 수출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 은행 보증 등의 서류와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수입품의 국내유통 사전허가 제도가 완화되었음.
-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WTO 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2005년 이후 WTO 가입협상을 중단하였으며, 2018년부터 가입협상을 재개하였음. 올해 2월 타슈켄트를 방문한 WTO 사무차장은 1~2년 내 가입 가능성을 언급하였음.
- 2019년 2월 비자 면제 대상국에 45개국을 추가하였음.
- 2018년 2월 한국, 일본, 터키 등을 비롯한 7개국 관광객에 대해 30일 이내 체류시 비자 면제를 시행한 이후, 면제대상국을 확대하여 왔으며 2019년 2월의 조치로 전체 비자 면제 대상국은 64개 국가에 달하게 됨.
-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수 개선 추세
- 2019 Doing Business 지수에서 우즈베키스탄은 190개국 가운데 76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2015년의 141위(전체 189개국), 2017년의 87위(전체 190개국)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투자자의 권한 보호, 세제, 국경 통관 시스템 등의 부문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수출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구 설립과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수출 지원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개발은행(Uzbekistan Development Bank)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1월 대통령령을 통해 기존의 국가투자위원회와 대외무역부를 통합하여 대외 무역투자부를 설립하였음.

## 정책성과

### 국제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추진

- ADB, EBRD, 세계은행, IDB 등과 공동으로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금융을 지원받고 있음.
- ADB는 2019~23년 국가 파트너십 전략에 따라 상하수도, 교통인프라, 전력보급, 일자리, 보건 현대화 등에 10억 달러의 지원을 추진함.
- EBRD는 2018~23년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국영기업 민영화, 신재생에너지, 지방의 상하수도 사업 등의 부문에 지원하고 있음.
- 세계은행은 주로 지역 및 농촌 개발, 복지 지원, 의료 시스템 개선 등의 분야에 지원하고 있음.
- IDB는 2018~21년 파트너십 전략에 따라 보건, 교육, 관개, 전력 등의 부문에 약 13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음.

### 관광 산업 발전 추진

- 2019년 1월 우즈베키스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령을 발표하였음.
- '우즈베키스탄 관광 발전 구상 2019~25" 발표를 통해 관광목적 사증 면제 대상국 확대, 관광 산업 관련 기업 활동 지원, 관광인력 양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말까지 1,508개의 호텔을 설립하는 등 숙박시설 신축 및 개보수와 교통망 정비, 외국 항공사 취항 유치 등을 추진하고자 함.

### 경제특구 정책 적극 추진

- 2008년 최초로 경제특구를 지정하였으며, 2019년 3월 말 기준 21개의 산업, 제약, 농어업, 관광 경제특구가 운영되고 있음.
- (산업 경제특구) 2008년 이후 10개의 산업 경제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2017년 이후 7개를 지정하며 최근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제약 경제특구) 2017년 5월 제약 분야를 대상으로 누쿠스, 조민, 보이순, 코손소이, 시르다리아, 부소톤릭, 파르켄트 등 7개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2019년 1월에는 안디잔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음.
- (농·어업, 관광 경제특구) 2018년에는 부하라 농업 특구, 수산물 가공 특구, 차르박 관광 특구 등 농어업, 관광 등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산업 경제특구 현황(2019년 3월 말 기준)

명칭	주요 투자 유치 부문	운영 개시일	면적(헥타르)	가동기업	특징
나보이	제조업	2008.12월	564 (배후단지 121)	17개	한국 기업 유치
안그렌	제조업(화학, 석유화학), 건축자재, 첨단산업	2012.4월	1,638 (물류센터 36.7)	21개	타슈켄트에 대한 소비재 공급
지작	첨단산업, 가죽, 식료	2013.3월	524	15개	중국 기업 유치
우르구트	기계, 자동차, 과일가공	2017.1월	42	(10개)	기존의 산업단지
기즈두반	섬유, 건축자재, 광물, 과일가공	2017.1월	67.5	(18개)	부하라, 나보이 인근
코칸드	전자부품, 기계, 제약, 섬유, 농산물 가공, 플라스틱 제품, 가죽	2017.1월	709.3	-	키르기즈와의 국경지역
하자로습	섬유, 건축자재, 식료, 화학, 제약	2017.1월	406.8	-	-
시르다리아	광물 가공, 농산물 가공, 섬유	2018.4월	-	-	-
나망간	과일, 채소, 섬유, 가죽, 기계, 건축자재	2018.8월	-	-	-
테르메즈	운송 및 물류	2018.9월	3,000	-	아프가니스탄과의 교역 및 운송물류

\* ( ) 안은 가동 준비 중.

자료: <https://sez.gov.uz/ru>,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우즈베키스탄 주요 산업 경제특구 위치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자유특구 현황 및 한-우즈벡 경제협력 방안』, 2018년, p. 16.

## 정치동향

###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낮은 자유도 기록

- 2016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 87.8%, 득표율 88.6%의 높은 지지율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선출되었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 후계구도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안정을 토대로 개혁과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자유화 지수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2018년 우즈베키스탄의 자유화 지수는 전 세계 180개국 중 140위를 기록하였음. 이러한 순위는 2015년의 160위(178개국 대상)에 비해서는 상승된 것이나,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순위임.(카자흐스탄 59위, 키르기즈 79위, 타지키스탄 122위, 투르크메니스탄 164위)
- 자유화 지수의 세부 평가항목에서는 법률체계나 재산권 보호 등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사회동향

### 명목임금이 상승 추세이며, 제조업 미발달에 따라 높은 실업률 기록

- 2018년 평균 명목임금은 225달러로 전년대비 25% 상승하였음.
- 직종에서는 은행 및 보험, IT, 통신 분야가 약 432달러로 가장 높으며, 제조업 338달러, 건설 284달러 등임.
- 2018년 기준 9.3%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음.
- 16세부터 25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이 17%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카쉬카다리아, 사라르칸트, 페르가나 지역이 9.7%로 가장 높고, 수도인 타슈켄트가 가장 낮은 7.9%를 기록하고 있음.

## 국제관계

###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등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추진

-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통관, 운송, 에너지 등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과의 새로운 통관 지역 설치, 키르기스와의 국경 획정, 타지키스탄과의 철도 및 도로 연결과 전력 수출 재개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추진 중임.
-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 중국을 연결하는 도로가 2018년 2월 개통되어 화물 운송시간이 기존의 8~10일에서 2일로 크게 단축되었으며, 향후 동일 구간에 대한 철도 건설도 추진되고 있음.

## 국제관계

###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중국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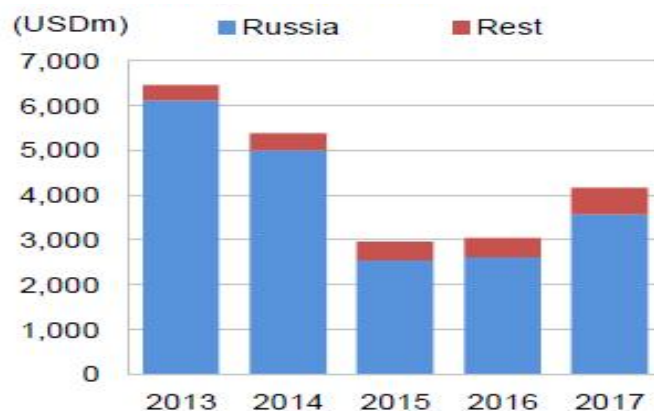


자료: <http://kabar.kg> 2018.01.27.

### 러시아와의 협력 지속

- 러시아와의 정치 및 제도적 협력에는 미온적인 입장이나, 경제 협력은 긴밀히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 및 안보 협력기구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나 역내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음.
- 대신 러시아와 에너지 개발 및 석유화학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의 석유기업 Lukoil은 칸덤 등 4개의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로 3개의 가스전에서 탐사를 계획하고 있음.
- 전체 해외인력 송금액의 약 80%가 러시아로부터 송금되고 있으며, 나머지 20%가 카자흐스탄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송금임. (2017년 기준 해외노동인력의 송금은 GDP의 9.6%)

### 해외취업 노동자의 송금액



자료: Fitch Ratings

## 국제관계

### 중국과의 협력 확대 및 일대일로 참여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 가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도 참여하고 있음.
- 중국은 2018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전체 교역의 19%를 차지하는 최대의 교역국임. 중국과의 교역에서 가스 수출 및 제조업 제품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규모는 2015년 15억 m<sup>3</sup>에서 2018년에는 34억 m<sup>3</sup>로 증가 추세임.

###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적극 추진

- 이슬람권인 UAE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2019년 3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UAE 방문에서는 100억 달러 규모의 양해 각서가 체결되었음. 우즈베키스탄 재건개발펀드와 아부다비개발펀드 간에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 설립이 합의되었으며, 공동 에너지 탐사 및 채굴, 가공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음.
- 주요 추진 프로젝트로는 UAE 기업의 특구 투자와 탈리마잔 화력 발전소 등의 현대화, 시르다리아 암모니아 공장 건설 등이 있음.

###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

- 미국 기업은 우즈베키스탄의 가스전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정부는 2010년부터 실시해 온 우즈베키스탄 면화 구매 제한 조치를 해제하였음.
- 미국은 강제 아동노동을 통한 목화 채취를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면화 구매를 제한하였으며, 2018년 9월 제한을 해제하여 향후 정부기관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면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그동안 구입을 꺼렸던 미국 민간 기업들도 면화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Epsilon Development사는 5개의 가스전 개발 사업에 20억 달러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음.
- 독일 기업의 진출 확대, 프랑스와 금융 협력 등이 진행되고 있음.
- 독일 공학 컨설팅기업이 타슈켄트 신공항의 건설 감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Siemens는 화력발전소 현대화, 변압기 공장 현대화 등의 사업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10월 우즈베키스탄과 프랑스의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전대차관 제공, 부하라 관광단지 조성 사업 지원, 섬유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음.

## 외채상환태도

### ECA 여신 잔액은 20억 5,310만 달러

- 2018년 9월 말 기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4억 1,410만 달러, 중장기 16억 3,900만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미미한 수준임.(중장기 여신 가운데 50만 달러 연체)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19.02)	6등급(2018.01)
Moody's	B1 (2019.02)	
Fitch	BB-(2018.12)	

###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았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발행에 성공

- 2018년 12월 Fitch로부터 신용등급 BB-를 부여받았으며, 2019년 2월에는 Moody's로부터 B1 등급을 부여받음.
- 2019년 2월 런던증권거래소에서 10억 달러 규모(5년 만기 5억 달러, 10년 만기 5억 달러)의 첫 국채 발행에 성공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개혁 및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외환자유화, 통계 시스템 개편 등의 경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향후 WTO 가입 등 개방정책을 통해 대외경제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기 침체 등 대외적 요인과 경상 수지 적자 전환 등 대내적 요인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으며, 이는 외채 관련 지표들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미르지요에프 대통령 집권 이후 국내에서는 정치 및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주변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경 문제 등을 해결하고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또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말과 2019년 초에 주요 국제신용평가 3사로부터 처음으로 국제신용등급을 부여받았으며, 2019년 2월에는 런던증권거래소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에 성공하며 국제금융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